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의 가능성 탐색

조영우(배재대학교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요약

다원화,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코칭이 효과적인 소통과 교육, 자기개발의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이프, 비즈니스, 학습,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코칭은 기독교 내에서도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이후 도서와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천 코칭의 대화법과 기술적인 요소들이 일반 코칭의 방법론과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개인 성도나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일반 코칭의 다양한 철학과 이론적 배경을 감안할 때 과연 코칭의 이론과 방법론이 성경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코칭과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설 정도로 이론적 토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코칭이 한국교회에서 더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근거와 일반 코칭과의 차별성이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리스천 코칭의 창조-타락-구속-회복의 거시적 성경적 세계관을 크리스천 코칭의 이론적 기반으로 제시하고 성경적 크리스천 코칭이 기존 교회 교육 체계에 실제로 접목될 수 있는 티칭-트레이닝-코칭 삼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천 코칭이 창세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 명령에서 최초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 성장되는 과정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최근 운영된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크리스천 코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코칭, 코치, 크리스천 코칭, 성경적 코칭, 성경적 세계관

I. 서론

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적 구호와 산업계의 마케팅 차원 전략에서 사용되는 유행어(buzz word)로 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 기술 등으로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대적 흐름 측면에서도 근대와 포스트모던 시대로 나누어 보면 1차와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근대화, 산업화의 시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발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산업기준과 대량생산 체제, 안정된 산업기반에서 성장한 중산층이 평생직장을 기반으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던 시대였다. 한국은 이 시기에 세계적 흐름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다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압적으로 근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1945년 해방 후에는 1970년대까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서구 세계에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정비례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신교의 급속한 정비례 성장이 주목을 받았다(김성건, 2013: 6). 이 시기에는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와 표준화된 제자훈련 등으로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정보화 혁명이었던 3차와 초연결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교세와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강문구, 2014: 389). 양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질적인 위기이다. 산업화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던 물질적 성공과 출세 중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았고 한편으

로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이 왜곡되어 세상과 단절된 폐쇄적인 교회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이원규, 2011: 180-181).

두 문제의 공통점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 밖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 공동체성으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원인은 3, 4차 산업혁명이 속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태어나 다윈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와 감각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청년들이 과거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한국교회의 기성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소태영, 2015: 4).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절대기준인 성경의 진리를 충실히 지키면서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겠는가? 이 논문의 고민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교회의 교육 혁신 차원에서 크리스천 코칭을 하나의 방안으로 소개하면서 복음의 본질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일반 코칭의 개념 및 시대적 배경

1. 코칭의 역사와 개념적 토대

코칭(coaching)은 스포츠 분야의 코칭으로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라이프 코칭과 비즈니스 코칭, 학습 코칭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 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코칭은 코치(coach)라는 행위자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보통 1500년대 헝가리 콕스(Kocs) 지역에서 운송수단으로 처음 사용되었던 마차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희경, 2014: 21). 운송수단으로서의 코치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대형 버스나 택시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될 정도로 역사성을 지닌다. 이는 또한 한 지점에서 고객이 목표로 하는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갖는다. 이러한 코치의 의미를 기차를 의미하는 'train'이라는 단어와 비교해보면 그 상징적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차가 고객이 원하는 구체적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기차는 철도가 깔린 길만 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역에만 도달할 수 있다(장성배, 2016: 330). 트레이닝(training)이 표준화된 훈련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트레이닝의 강점이 체계성과 표준화, 공통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코칭의 강점은 각 개인에게 맞출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과 개별 최적화, 쌍방향 소통의 역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코치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캠 강에서 대학생에게 노젓기를 개별 지도하는 코치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Collins, 2009: 27). 이를 계기로 코칭은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편화되었다(이소희 외, 2014: 26). 코칭이 스포츠 분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은 미국의 재무설계사였던 토마스 레너드(Thomas Leonard)가 자신의 코칭 경험을 토대로 1992년 Coach U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 코치들과 함께 1995년 국제코칭연맹(ICF,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창설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국코치협회가 설립되어 코치인증조건을 규정하고 자격시험 주관, 코치대회 개최 등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코칭이 가장 활성화된 영역은 비즈니스이며 라이프 코칭과 학습코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2005년 한국코칭학회가 창립되어 코칭학 분야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코칭은 지식 전달이 목적인 티칭(teaching)과 달리,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대방 중심의 대화 방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청, 공감, 질문, 칭찬과 인정, 피드백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협력적 대화의 과정이다. 코치는 상대방(피코치, 코치이, coachee)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적극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는 코칭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요소이다. 코칭의 가장 큰 특징적 요소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희 외, 2014: 241). 코칭에서 사용하는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활용한다. 아래의 예는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에서 사용하는 질문이 갖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상황 A: 일반 대화	상황 B: 코칭 대화
(수업 후 지각한 학생에게) 교사: 아,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오늘 왜 늦었어? 학생: 아, 네. 일찍 일어났는데 버스를 한 번 놓쳐서 그만. 교사: 그걸 변명이라고 해? 학생: 죄송합니다. 교사: 죄송하면 다야? 똑바로 안 해? 학생: ...	(수업 후 지각한 학생에게) 교사: 오늘 15분 늦었구나. 평소 성실한 친구가 지각을 하니깐 많이 걱정이 되었어. 학생: 아,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교사: 아,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훌륭하구나. 그럼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OO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학생: 알람 시계를 15분 일찍 맞춰놓겠습니다.

<표 1>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 비교

일반 대화인 상황 A에서 교사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학생에게 지각한 원인을 추궁하는 (You-message)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은 과거지향형이며 폐쇄형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하며 변명거리를 찾도록 유도한다. 설사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었다고 해도 학생에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감정만 상하고 마는 비생산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반면 코칭대화인 B에서는 교사가 사실에 입각한 표현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I-message)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며 과거보다 미래에 행동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므로 A보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코치는 피코치의 말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끌어내어 인정하면서 칭찬해준다. 또한 피코치의 실천계획 불이행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찰과, 반성, 개선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한다(이소희 외, 2014: 292).

코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청, 질문, 피드백 등 기술들을 사용할 때 특정한 단계들로 이루어진 코칭 모형(또는 프로세스, process)을 사용한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코칭 모형은 GROW모형이다. 이 모형은 Goal(목표 설정), Reality(목표 대비 현실 파악), Options(목표 달성 전략들), Will(실행 의지)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이희경, 2014: 126). 이 모형은 문제해결 과정을 코칭 단계로 응용한 것으로 다양한 코칭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구조화(structured) 모형들(Co-Active, Coaching Conversation, 웰*코칭, COACH, 5A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소희 외, 2014: 144-182). 숙련된 코치들의 경우 엄격한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비구조화(non-structured)나 절충적인 반구조화(semi-structured)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배용관, 2016: 259-260).

코칭을 인접 영역들과 비교해보면 코칭의 의미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코칭을 접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기존의 상담과 어떤 차이가 있는냐는 것이다. 상담(counseling)은 내담자(클라이언트, client)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처로 인하여 현재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과정이다(서우경, 2009: 37).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규 교육과정과 실제 임상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내담자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문제해결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상담의 주된 주제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상처, 아픔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담과는 대조적으로 코칭의 주제는 현재 피코치의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하고 배양하여 미래지향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담이 상처와 내면의 아픔을 연구하는 부정심리학(negative psychology)에서 비롯되었다면 코칭은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멘토링은 충분한 경험과 역량, 권위를 가진 멘토(mentor)가 멘티(mentee)에게 자신의 지식, 경험, 성공 비결을 전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1:1 관계라는 특성상 멘티 개인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멘토에게 중심이 있어서 멘티의 능동성 발전에는 여전한 한계가 있다. 멘토링과 달리 코치는 본인의 경험을 대화의 과정에서 중심으로 삼지 않으며 피코치에게 기준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모든 대화는 철저하게 피코치의 경험과 인식, 목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컨설턴트(consultant)가 클라이언트(client)와 특정 기간에 한정된 계약을 맺어 특정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솔루션, solution)을 도출하여 제시해주는 것을 말한다. 컨설턴트의 역할은 해결책 제시로 한정되며 실행은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몫으로 남는다. 컨설팅과 반대로 코칭은 코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코치가 겪는 어려움도 함께 느끼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겪어간다는 점에서 컨설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코칭과 지식의 층위

코칭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코칭을 통하여 발생하는 지식의 질적 수준 제고 때문이다. 권택조 (2009: 199-215)에 따르면 한 개인이 새로 접하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친다.

단계		설명
1	Information(정보)	인지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인식, 이해, 수용
2	Identification(확인)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 체계와 비교, 대조하여 확인
3	Integration(접목)	새로운 정보와 기존 지식, 타 분야와 연결, 접목시켜 지식체계를 확장, 재구조화
4	Insight(통찰)	접목된 지식체계 안에서 여러 연관 정보, 지식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 창출
5	Intuition(직관)	새롭게 창출된 지식을 뛰어넘어 연관이 없는 부분까지 연결시키는 직관 발생
6	Inspiration(영감)	지-정-의 수준을 넘어 영적인 깊이까지 도달하는 궁극적 지식

<표 2> 지식의 발전 과정(권택조, 2009: 199-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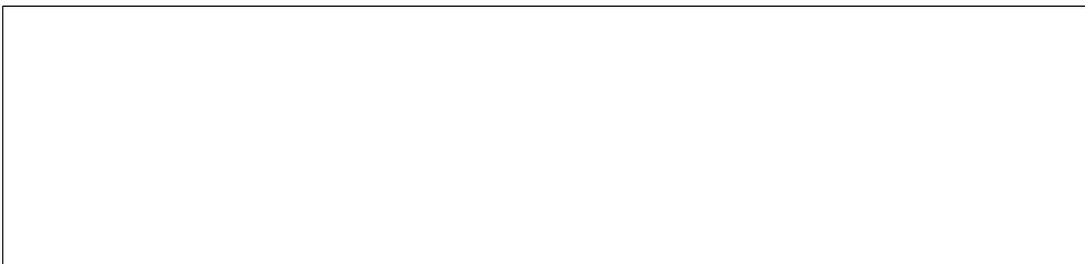
이 지식 발전 모형은 외부 지식이 지각 기관을 거쳐서 인지체계 안으로 들어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지식의 층위를 티칭(teaching), 훈련(training), 코칭(coaching)과의 연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1-2 단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객관적 지식을 이해, 수용하여 기존 지식체계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티칭이 효과적이다. 티칭은 ‘교수(teaching)-학습(learning)’의 한 축을 의미하며 가장 보편적이고 교육방법이다. 티칭은 교수자(teacher)-학습자(learner, student)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목적은 객관적 지식의 전달에 있다. 이때의 지식은 개념적(conceptual), 선언적(declarative) 지식이며 학습자가 해당 지식을 수용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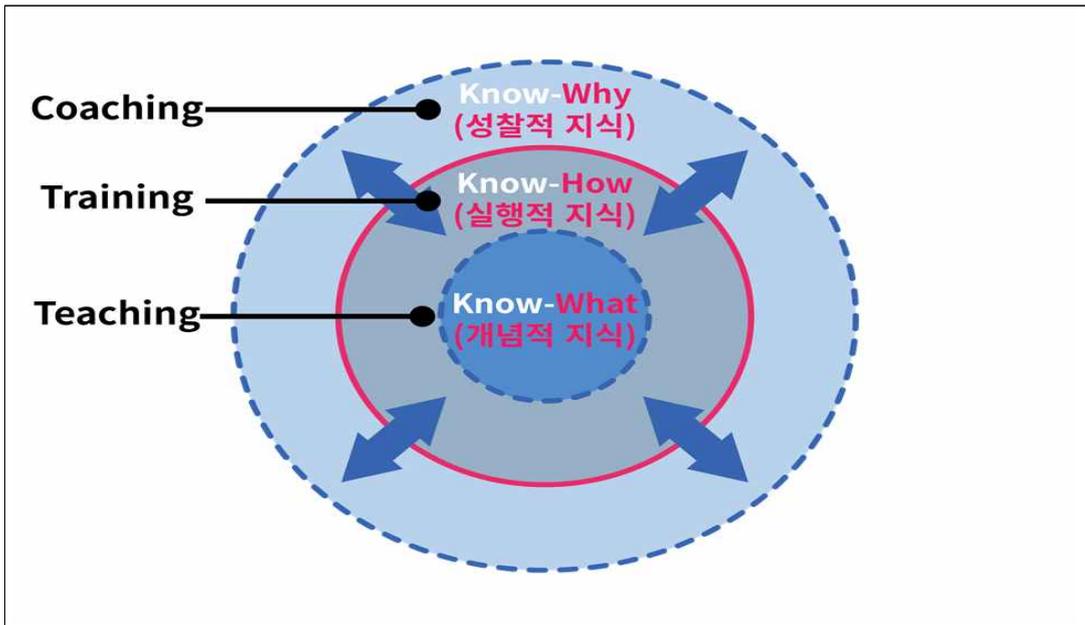
다음으로 3단계는 편입된 지식을 다른 분야의 지식과 융합하는 고차원적인 인지적 과정이 수반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훈련이 티칭보다 더 효과적이다. 티칭은 비교적 제한된 시간 내에 다수의 학습자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명확한 객관적 지식의 기준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트레이닝)은 훈련자(trainer, 트레이너)가 통상 다수의 피훈련자(trainee, 트레이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은 티칭으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적(executive), 절차적(procedural) 지식 숙달이나 또는 특정 기술(skill) 숙련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방법이다. 훈련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반복된 연습과 과제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반복된 훈련과 평가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련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훈련은 실행적 지식을 연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준화된 과정의 속성상 해당 기술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적 성찰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훈련은 자칫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교육이 될 위험성도 있다. 반복적인 꾸준한 훈련은 개념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으로 변환하는데 효과적이다.

4단계부터는 학습자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습득된 지식이 지-정-의와 상호작용하면서 심화, 융합되어 자신만의 내면화된 창조적 지식이 창출된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지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수준부터는 코칭이 효과적이다. 코칭은 통상 1:1 또는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며 특정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코칭 과정(process)는 사용하지 않지만 절차의 실행도 비교적 유연하며 코치가 원하는 답으로 유도하지도 않는다. 코칭은 코치(coach)-피코치(coachee, 코치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피코치를 중심에 두는 쌍방향 대화로 진행된다. 코치는 피코치와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항상 지원적(supportive), 협력적(cooperative) 자세를 유지한다. 코치는 피코치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한다. 피코치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관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피코치의 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격려를 해주며 답변을 확장, 발전시키는 피드백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코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내적 동기를 얻게 되고 실행계획을 스스로 수립,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얻으며 개념적, 실행적, 성찰적 지식의 합일을 이루게 된다.

티칭, 훈련이 외부로부터 변화를 유발한다면 코칭은 내부로서의 진정한 변화를 도출하는 강점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코칭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피코치의 지식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지식,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칭이 이루어질 때는 즉각적인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기 어렵다. 코칭은 티칭, 트레이닝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히 활용할 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5단계 이상의 지식은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 순간적인 직관적 깨달음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영적인 깊이에 도달하는 것으로 코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식의 층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3단계로 압축하여 티칭-트레이닝-코칭의 연계성과 함께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식의 층위와 교육방법의 연계성

이 삼중원 모형에 따르면 지식의 근본적인 층위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추상적, 원론적, 선언적 명제, 객관적 지식을 의미하는 know-what으로 설정된다. 이 층위의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티칭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now-why를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실행적 지식인 know-how로 변환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훈련이다. 모형에서 know-how부분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 층위의 지식만이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외적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경험 기반의 체화된 지식인 know-how는 2000년대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역량(competency)과도 겹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강영택, 2015: 8). 마지막으로 코칭은 학습자가 배운(taught) know-what과 반복된 훈련으로 숙련된(proficient) know-how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며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행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맥락화된(contextualized) 지식인 know-why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력한 사명감과 동기가 부여되고 주관적 의미까지 부여된 ‘내 지식’이자 ‘내 이야기’가 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김선영 외, 2015: 15).

요약해보면, 일반 교육 차원에서 수준 높은 know-why 수준의 지식 창출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반복적인 연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과 의미 부여, 내적 동기를 발견하는 코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삼중원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 삼중지식은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지식이 아니라 본질과 실체와 생명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통합적 지식체계이다. 이러한 삼중지식체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과 묵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경건생활과 연계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일반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과의 차별성에 입각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토대로 한 크리스천 코칭 모형에 대하여 논의한다.

III.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

1. 일반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의 차별성

오늘날 일반적인 코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크리스천 코칭에 대한 교계 전반적인 관심도는 충분하다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세상 모든 학문이 무신론, 인본주의, 다윈주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코칭도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긍정심리학, 인적자원개발 이론과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코칭이 과연 교회 내에서 사용할만한 도구인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 필요하다(장성배, 2016: 328). 무조건 코칭을 인본주의로 배척해버리면 인본주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티칭(설교, 강의), 훈련(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의 코칭은 인본주의적 코칭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인본주의 관점의 코칭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변화와 성장, 궁극적인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소희 외, 2014: 49). 따라서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완벽’하며 ‘결함’이 없는 존재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전제는 세상의 일반적인 인본주의 교육사상과도 일치한다. 이와 차별되는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코칭의 기반이 되는 원리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코칭의 초점은 개인적 목표, 대인관계, 업무/사업상 목표와 관련된 ‘자아실현’이지만 크리스천 코칭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일반 코칭은 사람의 성취가 중심이지만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의 성취”가 중심이다(서우경, 2009: 36). 단, 코칭은 그 과정에서 피코치에게 진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크리스천 코칭도 표면적으로는 일반 코칭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중심 주제나 궁극적인 도달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맥락에 맞는 선교전략적 관점에서의 교육방안을 생각해볼 때이다(한미라, 2013: 2).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크리스천 코칭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코칭의 성경적 세계관 탐색

크리스천 코칭이 일반 코칭과 비슷한 대화 방식과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코칭을 인본주의라고 비판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많은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대학 진화생물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모습과 외형적으로 같다고 해서 설교를 인본주의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면상 코칭의 대화기술과 모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저변에 성경적 세계관이 충실한가 여부, 코칭대화의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인가 여부가 인본주의 코칭과 성경적 코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크리스천 코칭을 학문적으로 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장성배, 2016: 328). 여기서는 코칭의 성경적 근거를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주제인 창조-타락-구속-회복-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흐름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특히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코칭의 근거를 탐색해본 후 코칭의 세부 기술에 관한 성경적 근거도 찾아보기로 한다.

(1) 성경에 나타나는 크리스천 코칭의 기본전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 축복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6-28)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크리스천 코칭의 인간관을 규정한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존재인 사람은 태생부터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역을 수행하는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크리스천 코칭의 첫 번째 전제이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람됨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었면서도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과 승천까지 모든 생애 가운데 전적으로 성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다. 탄생부터 시작하여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은 굴종이나 무력함, 소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삶의 목표에 대한 확신과 변화에 대한 용기, 지혜, 능력, 궁극적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능동적 삶을 사셨다.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요한계시록 19:16)”으로 세우주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의미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왕이 되고자 금지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상실하였다(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는 역사는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영광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에 따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크리스천 코칭의 두 번째 전제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또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진리를 선포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면 세계와 외부 세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도구인 코칭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중 제자들을 교육하셨던 모습에서도 코칭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의 예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비유 등의 방법 등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 탁월한 교사(teacher)였다.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것 외에도 때로는 제자들을 짝지어 마을로 돌려보내 체험식 훈련도 시키는 탁월한 훈련자(trainer)의 면모도 보여주셨다(누가복음 10:1-20). 코칭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모습이다. 물론 오늘날 코칭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티칭 방식이 아닌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코칭 방식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를 누

구라 하느냐?(마태복음 16:15)”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며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탁월한 교사-훈련자이신 동시에 코치였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는 과거에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추궁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셨다(요한복음 8:11).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그 고통에 공감하시며 우시기까지 하셨으며(요한복음 11:35),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붙잡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이 지향해야 할 모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즉, 세상을 악하다고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선한 말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죄에 대하여서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경청, 공감, 인정, 칭찬, 피드백을 주된 기술로 사용하는 코칭은 매우 효과적인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장성배, 2017: 130). 이제 부활 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트레이닝-코칭 모형은 오늘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성령의 사역과 코칭

구원받은 성도(칭의, justification)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성화(sanctification)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 선교, 구제 등 다양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수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크리스천 코칭의 핵심동력은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다. 이는 기독교교육과도 공유하는 핵심 전제이다(이란, 2017: 130).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코치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며 선한 말로 격려하며 동행해주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말씀 교육(teaching)과 제자훈련(training)을 받은 성도는 코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능동적 성도로 성장, 성숙해나갈 수 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개인 경건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변화, 성장, 성숙의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미 구원받았지만(al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간다(not yet).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궁극적 완성을 비전으로 삼으며 자신의 개인 삶 모든 영역과 주변, 교회 공동체 안 그리고 교회 밖 세상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도록 하는 인생의 목표들을 추구하게 된다. 크리스천 코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른 목표들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코치가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변화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코칭의 원리는 피코치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으로 성경과 부합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코치는 대화를 통하여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워나가는 훌륭한 섬김이,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성화 과정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코칭에 앞서서 철저한 예배와 성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훈련>코칭 순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체가 되는 하향식(top-down)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아직 충분한 예배와 성경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크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예배와 성경교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다. 먼저 크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소그룹 모임과 같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설교,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코칭>훈련>말씀 순서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모형(bottom-up)이다. 이상적인

모형은 연역적인(deductive)인 하향식과 귀납적인(inductive) 상향식(bottom-up)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이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섬김 관계맺음 방식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은 크리스천 코치-피코치가 맺는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코치는 피코치의 관점을 지향하고 피코치는 코치의 관점을 지향하는 가운데 서로의 관점이 상호작용하면서 엄청난 역동성이 발생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맺음, 소통방식을 모형으로 한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세 위격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개인 인격과 자유를 누리시는 동시에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세 위격의 상호섬김 공동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개인이시며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는 사람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맺음 방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맺는 자기중심적 관계와 대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영우, 2017: 64).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며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주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성령은 오직 성자만 증거한다. 삼위일체의 본질은 1인가 3인가의 숫자계산이 아니라 상호섬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다.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섬김의 관점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전환이 발생하여 하나님과의 상호섬김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이는 다시 한 번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명한다.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호 사랑과, 신뢰, 섬김, 나눔, 세움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코칭이 지향하는 상대방 중심의 대화에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중심에 두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또한 제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이었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코치와 피코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웃 중심의 관점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대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옛 사람과 새 사람

코칭은 항상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칭찬하면서 상대적으로 죄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교회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여 회개로 이끌어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코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코칭에는 칭찬과 격려도 있지만 다양한 피드백도 활용된다. 이 피드백에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문제에 대한 반성, 성찰을 촉구하는 부정적 메시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코칭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거나 문제 해결을 강요하지 않는다. 탁월한 코치는 죄를 정죄하고 훈계하는데 집중하는 대신에 스스로 죄를 자각, 인정,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며 회복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행한다. 더 심각한 수준의 죄 문제라면 코칭 방식이 아닌 상담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코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약과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장소를 이탈하여 어두운 죄 가운데 숨어 있는 아담의 실존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탁월한 존재적 질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코치셨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을 향하여 과거의 죄를 분석하고 정죄하는데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해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도 탁월한 코치셨다. 성부-성자-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코치이신 성령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우리 안의 ‘옛 사람’으로 죄를 질 때마다 바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코칭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4) 코칭 기술의 성경적 근거

코칭의 핵심 기술인 경청, 공감, 질문, 인정, 피드백은 성경에서 비교적 쉽게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경청의 경우 하나님 스스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성도 간에 경청을 강조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고보서 1:19).” 공감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도 바울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을 성도의 미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결코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한편, 질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고 욥에게도 질문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질문들을 사용한 것에서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칭찬의 경우도 성경 여러 곳에서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로마서 14:18).”

성경은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권면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드러날 때 ‘운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restore, 회복시키다) 것을 강조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운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라디아서 6:1).” 따라서 코칭의 핵심 기술들은 일반적으로도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성,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주제와 내용이 충족된다면 일반 코칭 기술들을 크리스천 코칭에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질문이나 칭찬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IV.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 모형의 적용

1.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실행 방안 및 기대효과

지금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크리스천 코칭 모형을 실제로 교회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핵심은 기존의 티칭-훈련 중심의 교회교육 체계와 코칭의 연계,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범위,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방안이다.

(1) 티칭>훈련>코칭의 삼중 교회교육 체계

혹자는 여전히 교회 안에 왜 코칭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코칭 없이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공

예배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전도, 구제, 선교 등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온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진리의 객관성과 기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의 티칭과 훈련 체계를 잘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끝까지 티칭에만 의존하게 되면 학습자를 수동적인 성향으로 만들고, 이해와 수용에 치중하여 적용과 실천능력이 저하된다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시에 복종하고 예배와 집회로 모이는 데에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상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개인 신앙생활의 적용과 타인과의 관계 면에 약점을 보이는 것은 일방적인 티칭 중심의 기존 교회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티칭 다음으로 표준화된 훈련을 실시하여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획일적인 훈련에 대한 반감이나 동기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자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 간 다음에는 스스로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제자 훈련 과정이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크리스천 코칭은 티칭으로 배운 개념적 지식, 훈련으로 숙달된 실행적 지식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하고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적 질문을 던져주고 답변에 대한 칭찬, 격려,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교회교육의 티칭-훈련 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코칭을 받는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코치와 대화로 상호작용하면서 소통능력이 강화된다. 코칭으로 훈련된 성도는 가정과 직장생활에서도 경청, 공감, 수용능력이 미신자들보다 탁월하므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도와 선교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티칭(설교, 강의)>훈련(제자훈련 프로그램, 소그룹 성경공부)>크리스천 코칭(개별, 소그룹 코칭) 방식으로 교회교육 체계를 설계하면 말씀의 이해와 적용, 실천이 균형 잡힌 능동적이고 성숙한 교인을 양성하여 세상 속으로 파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코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가나안 교인들’의 존재이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박성원·권수영 2017: 70). 이들이 교회를 떠난 주된 원인들 중 하나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사역에 대한 의무와 부담감 때문에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동기를 찾을 수 없었고 내면의 영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교회에서의 역할에서 개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박성원·권수영 2017: 86). 쉽게 믿음이 없는 자들로 치부되기 쉬운 이들의 목소리 속에는 외적인 신앙이 내적 신앙으로 발전해나가는 성찰과 의미, 가치 부여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인 코칭이 교회 내에 필요한 교육의 요소라는 시사점이 담겨있다.

(2) 크리스천 코칭의 대상과 적용 분야

크리스천 코칭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먼저, 교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들은 공예배 출석과 목장, 구역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순종형 교인들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본인의 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을 어려워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 성숙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교인의 경우 코칭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잘 하지만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대화 방식 등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가 코칭을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관계 형성과 소통에 탁월한 소통형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코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바로 목회자들과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목회자, 장로 등 교회 리더들이 소통에 실패할 때 교회는 큰 문제를 겪게 된다. 코칭을 통하여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 칭찬하는 대화를 구사하는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며 갈등 시에도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풀어갈 수 있는 교회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코칭은 성경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회 내 성경공부는 보통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성경 단권을 단

원별로 나누어 공부하거나 교리나 신앙생활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전통적인 진행 방식은 리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티칭 방식이다. 좀 더 유연한 방식은 본문을 먼저 읽은 후 그룹원들이 본문 이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보통 간식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는 소위 셰어링(sharing) 시간이 곁들여진다. 이 셰어링 시간을 잘 활용하면 조원들의 한 주간 삶이 말씀과 섞이면서 회개와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결단은 여전히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자발적인 것이고, 실천에 대한 지원과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월요일 삶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의지가 약해져서 실천을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멧쩍은 반응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경청과 공감의 체질화되는 소그룹 코칭에서는 더욱 활발한 삶의 나눔이 몰입감있게 펼쳐질 수 있다. 상대방의 말 가운데 드러나는 은사, 선행, 순종의 실천 등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대화로 이어지게 되고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는 외부가 아닌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순종의 과제 도출로 마무리되게 된다. 코치는 조원의 동의를 받아 주중에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이블 코칭’이 이루어진다면 성경공부의 과정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코칭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동적인 성도들이 되어 배운 성경말씀과 설교를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건강하고 역동적인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코칭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도식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확신 기도를 하는 방식의 전도만으로도 효과적이었지만 코칭 대화의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미신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코칭 대화로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미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관점의 코칭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종교, 사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선교적 자세이다(신국원, 2015: 22). 이러한 선교적 차원에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부관계 코칭, 자녀코칭, 학습코칭 등 코칭 과정들을 개설하여 미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로 진입하고 코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체험하면서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4)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전 지역의 A교회는 70년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성향의 전통 교회로서 50-60대가 주류를 이루는 정기출석 교인 3천명 규모의 대형교회이다. 이 교회의 교육훈련체계는 티칭 개념의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의 담임목사 강해설교로부터 시작된다. 2016년부터 선교훈련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18년에는 복음의 기본원리를 교육하는 로마서 성경공부 훈련과정도 개설되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교회 내 상담위원회 주관으로 ‘코칭스쿨’을 개설하여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4-5월 총 7주 동안 ‘크리스천 코칭 기본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티칭-훈련-코칭 순서로 교육체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말씀 티칭에서 시작하여 삶에서의 적용 코칭으로 마무리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과정의 소개문과 강좌 구성이다.

코칭스쿨: 크리스천 코칭 기본과정 소개

<p>크리스천 코칭 기본과정은 대인관계를 초점에 두고 2018년 4월부터 개설되는 코칭스쿨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의 관계와 리더십을 실천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크리스천 코칭: 기본 과정’을 개설한다. 코칭훈련 수료자는 교회 내 교육 및 사역 부서의 목사, 교사, 임원 등으로 섬기면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강좌 구성</p>
<p>▶ 상반기: 크리스천 코칭-기본 과정 개설(수강자격 제한 없음) ▶ 하반기: 크리스천 코칭-영역 별 심화 과정 개설. 관계코칭, 비즈니스 코칭, 학습코칭, 코칭을 활용한 관계 중심 전도, 바이블 코칭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한 후 추후 결정할 예정(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p>

<표 3> 크리스천 코칭 기본과정 소개문

교회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코칭 과정이었고 주일 저녁 5-8시까지 비교적 어려운 시간대였는데도 총 90명이 참여(1회 이상 청강생 포함)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였으며 정식 등록한 교육생은 51명이었다. 강사진은 담임목사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코칭에 대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코치 자격 보유자 중 박사 또는 목회자로 구성되었다. 기본과정에서는 총 3명의 강사(목사 2명, 대학교수 1명, 모두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가 5주간 나누어 강의를 하였다. 6주차는 동영상 강의로 개별 학습을 하면서 수료시험 대비와 미비한 과제를 보충하신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7주차에 시험과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총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강의 6시간, 실습 6시간과 조별훈련 5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의 성과와 교육생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기본과정은 수강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추후 개설될 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요건을 두었다. 기본교육 과정의 각 주차별 강의 주제와 내용 및 수료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차	강의 주제 및 내용
1	<p>강의: 성경적 세계관과 크리스천 코칭 개관, 코칭 기본모형 및 활용 분야 조별모임 실습: Ice-breaking/토론 과제: 학습성찰일지 #1 작성</p>
2	<p>강의: GROW 코칭 모형 소개, 공감적 경청 조별모임 실습: 공감적 경청, 코칭 모형 실습 과제: 학습성찰일지 #2 작성</p>
3	<p>강의: 질문하기 훈련 조별모임 실습: 공감적 경청, 질문, 코칭 모형 실습 과제: 학습성찰일지 #3 작성</p>
4	<p>강의: 비폭력대화와 인정, 칭찬 코칭기술 조별모임 실습: 공감적 경청, 질문, 인정, 칭찬, 피드백, 코칭 모형 실습</p>

	과제: 학습성찰일지 #4 작성
5	강의: 1-5주 복습 및 코칭 프로세스의 실제 조별모임 실습: 코칭 실습 과제: 학습성찰일지 #5 작성
6	강의: 코칭 동영상 강의 개별 시청(코칭을 위한 성령론, 자녀코칭)
7	시험: 필기+실습, 조별 마무리 모임, 수료식
수료 조건	강의 6시간(오프라인 5+온라인 1시간)+정규실습 5시간+조별모임 5시간+주간성찰일지 5회분+최종학습보고서+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수료증 발급

<표 4> 크리스천 코칭 기본과정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1주차 강의 주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코칭의 진체를 먼저 제시하여 인본주의의 유입을 차단하고 코칭교육의 주체를 성령으로, 목적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그 이후 주제들을 보면 경청, 공감, 질문, 인정, 칭찬, 코칭 모형 등 정규 코칭교육에서 규정한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통상 코칭 기본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비폭력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가 4주차 중심주제로 선정된 점이다. 이것은 이 교회의 맥락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갈등 예방과 효과적인 해결에 대한 필요를 코칭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으로 담임목사와의 면담과 교인들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다. 총 3시간동안 진행되는 각 주차별 교육에서는 첫 시간 강의 후 조별 모임을 통하여 간식을 겸하여 강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 내용 보충과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매주 강의가 끝난 후 교육생들은 정해진 교재 범위를 읽고 강의 내용과 목상 내용을 정리하여 성찰일지를 제출하였다(총 5주). 7주차에는 1-6주를 총정리하여 최종학습보고서로 배운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했으며 40문항으로 구성된 수료시험을 완료하였다.

성찰일지와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큰 만족과 함께 가족구성원, 직장동료 등과의 관계에 소정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생 #15(30대 남성)는 최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코칭 교육 전후를 비교하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술했다.

교육생 #15: 최종보고서-코칭교육 전

단순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르치려고만 했고 이해 및 납득시키려고만 했다.

교육생 #15: 최종보고서-코칭교육 후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진정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 좀 더 깊이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칭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서를 통하여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이 상대방을 의식하는 관점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주차 성찰일지이다.

교육생 #15: 성찰일지 #5

이번 교육을 통해 깨달은 것은 코칭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귀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가 우선되어야 코칭교육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깨달

게 되었다.

코칭교육 전후에 대한 묘사에서는 일반 코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욕구 파악, 경청, 타인 사랑과 존중에 대한 언급만 되었지만 성찰일지 #5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사랑과 교제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생 #15의 사례를 통해서 교회 내 크리스천 코칭이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에 두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코칭과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이 지향하는 복음의 본질 고수와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두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른 교육생들의 글들도 대체적으로 교육생 #15와 같이 코칭교육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자신의 평소 대화방식에 대한 반성, 교육의 성과, 여전히 잘 되지 않는 한계점들을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짧은 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관점의 문제점과 경청, 공감 등 코칭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육생 #1의 경우에도 교회 내 관계의 피상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세상이 보는 교회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대화방식의 개선을 기대하는 의지를 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생 #1: 성찰일지 #4

특히 교회 내에도 어찌 보면 사회보다도 더 골이 깊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이중성과 소원함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행하고 느끼면서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외부의 비신앙인들의 모습에 그렇게 비취질 것임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며 이번 코칭교육을 통해 우리 일상의 대화방식과 말들이 사랑과 행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방향으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교육생 #1을 포함한 다수의 교육생들은 코칭의 중요성과 대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교육생 #1: 성찰일지 #4

다만 교육시간에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고질적인 죄성 및 습관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변화되려는 용기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강사진과 교육생들은 실습 시간의 부족을 절대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과정 설계에서 더 많은 시수를 추가하지 못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학교 부서와 사역부서, 목장 및 특별훈련과정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더 장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커다란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향후 실습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적인 사역과 교육체계의 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교육생들 간에 성찰일지의 질적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음도 발견되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상세하고 싶은 성찰과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 know-why 수준에 도달한 성찰일지도 있었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해서 실행에 옮긴 know-how 수준의 지식 습득을 표현한 교육생도 있었지만 한 문단 수준으로 강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데 그친 know-what 수준의 글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육생도 1명 있었다. 교육생 #24(50대 여성)는 코칭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받아들이는데 큰 부담이 있으며 주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와 훈련을 받는 피곤함도 토로하였다. 이 경우 주목할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강권에 의하여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코칭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확실적이고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성에 달려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향후 좀 더 면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탐색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성공요인으로는 코칭에 대한 담임목사의 중요성 인식과 목회적 결단, 평신도사역자(상담위원회 소속)들과의 원활한 협조와 소통, 교회 내 소통 문제를 경험한 성도들의 코칭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자발적 참여 등 교회 내 상황과의 접목,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인 코칭 기술과 프로세스를 접목시킨 균형 잡힌 교과과정, 강사진 간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은 강사 별로 중복된 강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 육체적으로 피곤한 강의 시간대, 실습 시수 부족을 들 수 있다. 향후 본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선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예배, 설교, 제자훈련 체계를 세운 후 코칭을 활성화하여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온전한 (whole-person)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구한말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한국사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몸을 던졌던 능동적인 성도들이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한국사회보다 뒤처진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10-20대 기독교인의 비율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확실한 것만 취하려는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복음의 진리에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도, 혼합주의에 대한 면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한국사회에 진리, 구원, 사랑, 섬김의 복음으로 거룩한 반격을 가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천 코칭 사역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신학적 깊이와 실증적 증거 제시 등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훈련 중심의 한국교회의 교육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이론과 실증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코칭학을 정립해나가는 동시에 교회교육과 소통, 리더십, 전도, 선교 목적의 다양한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문구 (2014). “한국교회 청년부 부흥방안에 대한 연구-소그룹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 41, 387-420.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 20(1), 7-37.
- 김선영·박경은·정석환 (2013).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26(4), 9-32.
- 김성건 (2013).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 38, 5-45.
- 대한성서공회 (2005). 『NIV한영해설성경』 . 서울: 아가페출판사.
- 박성원·권수영 (2017). “‘가나안 성도’들의 탈(脫)교회에서의 신앙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28(4), 69-106.
- 배용관 (2016). 『리더의 코칭』 . 서울: 아비요.
- 서우경 (2009). “크리스천 코칭과 상담의 비교 및 통합적 적용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18, 33-60.
- 소태영 (2015). “성일 발현기(Emerging Adulthood) 청년들(20-29세)의 요구분석에 기초한 교회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제안.” 『기독교교육정보』 . 46, 1-34.
- 신국원 (2015). “다원주의 사회와의 선교적 대면.” 『신앙과 학문』 . 20(3), 7-26.

- 이란 (2017).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신앙과 학문』. 22(4), 129-159.
- 이소희·길영환·도미향·김혜연 (2014). 『코칭학 개론』. 서울: 신정.
- 이원규 (2011). “부흥의 추억: 한국교회, 미래는 있는가?: 한국교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3, 154-187.
- 이희경 (2014). 『코칭심리 워크북』. 서울: 학지사.
- 장성배 (2016). 대한성서공회 (2005). 『NIV한영해설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 장성배 (2017). “코칭의 경청과 질문을 통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신학과 세계』. 92, 127-169.
- 조영우 (2017). 『평신도가 성경과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성남: 선학사.
- 한미라 (2013).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교육: 상생인가 해체인가?” 『기독교교육정보』. 36, 1-43.
- Collins, G. R. (2009). Christian Coaching (2nd ed.). 양형주·이규창 역 (2011). 『게리 콜린스의 코칭 바이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요약) 성경적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의 가능성 탐색

다원화,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코칭이 효과적인 소통과 교육, 자기계발의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이프, 비즈니스, 학습,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코칭은 기독교 내에서도 크리스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이후 도서와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천 코칭의 대화법과 기술적인 요소들이 일반 코칭의 방법론과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개인 성도나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일반 코칭의 다양한 철학과 이론적 배경을 감안할 때 과연 코칭의 이론과 방법론이 성경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코칭과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설 정도로 이론적 토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코칭이 한국교회에서 더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근거와 일반 코칭과의 차별성이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리스천 코칭의 창조-타락-구속-회복의 거시적 성경적 세계관을 크리스천 코칭의 이론적 기반으로 제시하고 성경적 크리스천 코칭이 기존 교회 교육 체계에 실제로 접목될 수 있는 티칭-트레이닝-코칭 삼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천 코칭이 창세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 명령에서 최초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 성장되는 과정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최근 운영된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크리스천 코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코칭, 코치, 크리스천 코칭, 성경적 코칭, 성경적 세계관